



설악양봉원 조성봉

프로폴리스를 취급하면서

오늘 제가 프로폴리스에 대하여 글을 쓰게 된 것은 그동안의 문제점과 우리 양봉인들의 주의할 점 등등. 여러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취급하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양봉인들은 프로폴리스라고 하면 누구나 이제는 조금씩 취급도 하고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며 건강식품으로 인식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폴리스가 시중에 판매되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또한 염려안 할 수 없겠지요.

먼저 프로폴리스를 물에 타서 마시면 부작용 즉 사람마다 체질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반응이 각자 조금씩 다릅니다.

첫째, 머리,배가 아프고, 변비가 생기면 3 - 4일 정도 쉬었다가 마셔야되고, 또한 복용한 양을 조금씩 줄여서 물을 더 희석하여 마시면 되지만 프로폴리스를 마셨는데 입속이 험고 가슴(심장)이 답답하고, 또는 온 몸이 가려움 증상이 오면 일단 중단해야 하며 몸 전체가 정상이 되고, 아무런 이상이 없을 때 아주 연하게 하여 조금씩 상태를 보아가며 마셔야만 합니다. 프로폴리스가 좋다고 몸의 이상이 생겼는데도 계속 마시면 환자들은 더 고통을 받고 또 그 좋은 프로폴리스의 가치가 떨어지니 이러한 사항을 주의하며 취급하여야만 합니다. 문제는 너무나 과대광고를 하여 소비자에게 판매 하다보면 약사법과 과대광고로 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과대광고에는 삼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위염, 장염, 비염, 대장염, 신장염 등등... 실제로 있었던 한 예를 들어 소개하겠습니다. 1999. 12. 6일 보건강원에서 프로폴리스가 좋다고 해서 가게 유리창에 광고를 붙여놓고 판매하다 지나가던 보건소 직원이 유심히 광고내용을 보고 경찰서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아본 결과 알콜로 여과 한 것은 허가품이 아니기 때문에 과대광고, 약사법 및 제조법위반으로 형사 입건에 해당된다고 하여, 인맥을 동원하여 영업정

지 15일에 벌금 50만원을 검찰에 납부하고 무난히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하나 사례는 부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프로폴리스가 여드름에 먹고 바르면 좋다고 선전하고 27세 아가씨에게 판매를 하였습니다. 이를 구입한 처녀는 얼굴에 바르니 얼굴에 여드름이 더 심하여 배상하라고 싸움을 하고 나중에는 싸움 끝에 검찰에 고발되었고 역시 인맥을 통하여 무난히 사고처리는 되었지만 손해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한 사례와 이 외에도 여러 곳에서 가끔씩 사고가 나고 있으니 항상 주의하여야만 합니다. 프로폴리스는 현재 알콜로 여과시킨 것은 허가품이 아니라는 것 명심하시고 취급하시기 바랍니다. 프로폴리스는 바이러스에서 오는 병균, 여드름, 상처, 화상, 거친 피부는 분명히 효과가 좋으나, 얼굴에 직접 바르면 얼굴이 검게 되고 보기가 좋지 않으니 권하지 마시고, 위염, 장염, 비염(알레르기) 치료에는 아주 특효입니다. 현재 식품 의약청 일반독성과에서 간경화를 연구하고 있으며, 아주 좋은 결과로 진행되고 있어 논문으로 곧 발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환경청(정화조담당)에서 프로폴리스를 실험한 결과 세균성 박멸에는 효과가 없었으나 바이러스에서 오는 균은 1분도 안되어 전부 균이 죽더라는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돼지 가축 사료회사에서 새끼 돼지가 태어나서 설사를 자주 하면 죽게되어 프로폴리스를 투여하여 실험한 결과 상상의외로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실험 중에 있으며, 기타 미생물연구소에서도 프로폴리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실험 연구 중에 있습니다. 머지 않아 프로폴리스를 이용한 다양한 건강식품 및 약제를 이용한 활용 가치가 평가되면 우리 양봉농가의 농가소득에 일익을 담당 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본인도 끊임없이 계속 연구하여 양봉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02-2297-5424)

